

해남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선정

기후 데이터 플랫폼 등 첨단인프라 갖춰
2025년 삼산면 일대 3ha 규모 설립 예정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 대상지로 해남군이 최종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은 사업비 4,07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기후 관련 데이터 플랫폼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재현이 가능한 첨단인프라 등을 갖추고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총괄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22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도 후보지로 선정된 해남은 전국에서 공모한 4개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 끝에 지난 17일 최종 대상지로 확정됐다.

오는 2025년까지 해남군 삼산면 일대 3ha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해남으로서는 첫 대규모 국가기관 유치로 전국 최대 농업군으로서 위상 제고와 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도 되고 있다.

해남군은 한반도의 시작이자, 기후변화의 관문에 위치한 입지조건과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분야 기반이 충분한 점을 내세워 농식품 기

후변화대응센터의 최적지임을 강조해 왔다.

지난 2019년부터 유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으며 2020년에는 전국 최초로 해남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왔다.

특히 농업연구단지 조성에 필요한 35ha에 이르는 부지 매입을 완료해 관련 시설을 집적하고, 빠르게 사업추진이 가능한 점이 높은 평가를 이끌어 냈다.

전남도와 협업을 통한 유치 전략도 주효했다. 해남군 농업연구단지 부지에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와 함께 전남도 농업기술원 산하의 통합과수연구소, 군 자체 연구시설인 과학영농 실증시험기반 구축 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앞으로 국가·광역(도)·기초(군) 지자체의 협업이 가능해지면 기후변화 대응 농업 정책, 연구, 기술개발 등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명현관 해남군수가 기후변화대응센터 사업부지를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해남군 제공

센터 유치를 위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물론 윤재갑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남도 국회의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유치 타당성을 설득했고, 전남도 22개 시장·군수와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유치지지 성명을 통해 힘을 보태면서 결정적 성과를 이끌어 냈다. 또한 전남도의회, 해남군의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이장단 협의회 등 범군민적 참여를 통해 한 목소리로 의

를 모아온 것도 큰 효과를 거뒀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군민들의 염원을 모아 적극 추진해온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는 해남 농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며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군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남=박병태 기자

영암, 남도문예 르네상스 사업 선정

‘커피와 함께 예술을 즐기다’ 콘텐츠

영암군은 올해 전남도 남도문예 르네상스 시군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커피와 함께 예술을 즐기다’ 콘텐츠가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지역 10개 커피숍을 통해 2차례에 걸쳐 예술작품을 가까운 거리에서 예술작품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 작품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작가·소상공인·지역주민이 서로 상생하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분위기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암읍 남주로 커피에서는 월출미술인회 대표 정선휘 작가의 ‘삶속의 풍경’이라는 주제로 작품 5점이 전시되고 있고, 삼호읍 까르페디엠에서 최인경작가의 ‘휴식’, 다채로니에서 김기찬 작가의 ‘차 한잔 여유’ 등 10개 커피숍에서 88개의 예술작품을 직접 만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없는 만큼 지역의 커피숍에 전시된 다양한 작품들을 찾아보며 여유를 즐기는 시간들이 일상의 ‘소확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암지역 안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최복섭 기자



해남군은 최근 해남군청에서 비알코리아(주)와 해남농산물 공급 및 소비촉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남군 제공

“목포에서 다채로운 행사 만나보세요”

문학박람회, 목포해상W쇼·항구축제 등 진행

남만항구 목포시가 오는 10월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인다.

출발은 ‘2021 목포문학박람회’다. 문학을 주제로 전국 최초로 목포문학박람회는 ‘목포, 한국 근대문학의 시작에서 미래문학의 산실로’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목포문학관 일대, 원도심, 평화광장 등에서 개최된다.

문학박람회는 전시, 강연, 경연, 체험 등 109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목포문학관 일원(갯바위문화타운)과 원도심 등에서는 4일 내내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평화광장에서는 개막식, 목포문학상 시상식, 폐막식 등이 진행된다.

목포해상W쇼도 10월에 첫 선을 보인다. 목포해상W쇼는 평화광장 앞바다에서 춤추는 바다분수, 해상무대 공연, 불꽃쇼가 한데 어우러진 입체적이

고 생동감 넘치는 야간관광콘텐츠다. 목포해상W쇼는 10월 6일 시연회를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에 펼쳐지는데 문학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매일 진행된다.

10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문화재 야행’이 개최된다. 지난 2018년부터 ‘지붕없는 근대역사박물관’으로 불리는 유달동, 만호동 일원에서 해마다 열리는 야행은 목포 가을을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오프라인으로도 공연, 체험,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목포 가을을 대표하는 행사인 ‘목포 항구축제’는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목포문화관광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목포특산물 라이브커머스, 온

라인 바스킹 공연, 목포파시 미션투어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도가 주최하는 대형 행사도 목포에서 열린다. ‘오채찬란 모노크롬 생동하는 수목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주제로 지난 1일 개막한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오는 10월 31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다.

오는 10월 23-25일에는 ‘제24회 전라남도 도민의 날’ 관련 행사도 평화광장에서 열린다.

10월 마지막 주에는 ‘2021 김대중 평화회의’가 개최된다. 평화회의는 고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을 맞아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오는 10월 26일 전야제를 27-28일 개최된다.

김중식 목포시장은 “모든 행사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코로나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세부 프로그램에서부터 방역까지 모든 부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승경 기자

무안,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

무안군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교통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무안전통시장, 일로전통시장에서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펼쳤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무안군을 비롯한 무안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각 기관과 사회단체는 현수막, 피켓을 들고 시장일대에서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교차로모퉁이·버스승강장·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고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홍보함으로써 방문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안내하며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도 함께 홍보했다.

김산 군수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군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도로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박주현 기자

해남 고구마 아이스크림으로 출시

비알코리아(주)와 업무협약

해남고구마가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으로 출시된다.

22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해남군청에서 비알코리아(주)와 해남농산물 공급 및 소비촉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와 도세호 비알코리아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비알코리아(주)는 글로벌 NO.1 베스킨라빈스와 단돈노츠를 보유한 기업으로 전국 1,600여개 베스킨라빈스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비알코리아(주)에서는 10-11월 두 달 동안 해남고구마를 원재료로 한 고구마 아이스크림 케이크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아이스 찹쌀떡 등 4종의 신상품을 출시, 판매할 계획이다.

신제품 재료는 해남산 고구마 16톤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해남군은 안

정적 납품이 가능한 법인을 선정해 고품질 고구마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남군과 비알코리아(주)는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소득향상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발굴과 생산, 품질향상과 안정적인 공급, 홍보마케팅 등 농수산물의 소비 확대에 공동의 가치와 이익 증진을 추구하는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 고구마 아이스크림 외에도 전국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해남군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가공식품과 빵, 떡 등 외식사업까지 확대해 공동발전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 “해남군에서도 다양한 마케팅 지원과 더불어 농가와 협력해 더 좋은 품질의 농수산물이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무안 봉산농장 류명상 대표, 승달장학금 기탁

무안군은 최근 몽탄면에 있는 봉산농장 류명상 대표가 (재)무안군승달장학회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

류명상 대표는 “무안군에 승달장학회라는 장학재단이 있다는 것을 주변에서 듣고 기회가 되면 꼭 기탁을 하고 싶었다”면서 “무안의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재)승달장학회에 조금이나마 보

탔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기탁의 뜻을 밝혔다.

김산 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들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탁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류명상 대표의 기탁은 반갑고 고마운 소식이다”며 “소중한 기탁금은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소중한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강진 칠량면지사협, 취약계층 반찬 나눔

강진군 칠량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칠량 미식회’ 사업을 진행해 칠량면 거주 독거노인, 장애인 등 33가구에 반찬나눔 봉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립감과 우울감이 높아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협의체 위원 및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함께 장조림, 마

른반찬, 열무물김치 등 3종류의 직접 조리한 반찬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

황봉원 민간위원장은 “반찬을 받은 분들이 다들 반갑게 맞아주고 좋아해 주시니 나눔의 기쁨이 배가 됐다”며 “앞으로 꾸준한 나눔봉사 사업을 추진해 더 밝고 행복한 칠량면을 만들어 가마을부녀회 회원들이 함께 장조림, 마



한국전력 럭비팀, 진도실고서 재능기부

한국전력 럭비팀은 진도군에서 전지훈련 기간 중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전남대표(19세이하)로 출전하는 진도실고 럭비팀에 전술 등을 지도하고 운동화 등 400여만원 상당의 운동용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전력 럭비팀은 지난 1986년 5월 창단 후 수많은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했다.

특히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2020년 도쿄올림픽에 7명이 선발돼 핵심 선수로 활약하는 등 국내 럭비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한국 럭비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진도군 럭비협회 관계자는 “진도실고 럭비팀의 사기 진작과 전지훈련을 진도에서 실시한 한국전력 럭비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